

배임·폭로, 내부 곪은 ‘카카오’… 노조도 팻말 시위 나섰다

김정호 경영총괄 스스로 징계 요청
기술탈취 등 소상공인 갑질 의혹
노조, 본사 앞서 첫 피켓팅 시위
카카오에 경영쇄신 등 촉구 목소리

카카오 경영진의 경영쇄신 노력에도 그룹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정호 카카오 CA협업체 경영지원총괄의 내부 폭로전은 일단락됐지만, 각종 내부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핵심 경영진은 물론 김범수 창업자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데 이어 계열사들도 ‘분식 회계’와 ‘기술 탈취’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노조까지 시위에 나서며 내홍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때 3위를 지키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10위 밖으로 미끄러졌다.

◆그룹 자체적으로 ‘부실 인정’… 경영진 배임부터 내부 폭로까지

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말 카카오그룹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기존에 알려졌던 시세조종 혐의 외에 배임 혐의 관련 증거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호 카카오 투자전략본부장 등이 바람픽처스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2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 본부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바람픽처스 제작사에 투자했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23일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본부장은 200억원 들여 증거했고, 총 400억원을 카카오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윤정희가 투자인 바람픽처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이 부문장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문장은 카카오가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상태다.

그룹의 핵심 경영진까지 내부 문제를 폭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김정호 카카오 CA협업체 경영지원총괄은 안산데이터센터 시공사 선정, 서울아레나 비리 의혹, 제주도 유희부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비리 혐의 내용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했다.



카카오 노조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피켓팅 시위를 열고 사측에 인적 및 경영쇄신을 촉구했다. /뉴시스

김 총괄은 카카오가 안산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추진했고, 제주도 프로젝트 역시 내부 결재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법인 골프회원권, IDC/공연장 비리, 경영진에 편중된 보상 등 카카오 내부문제를 폭로했다. 그러나 김 총괄이 지목한 카카오 내부 임원과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등 극단적 내분 사태로 확대됐다.

다만, 김정호 총괄이 스스로 사측에 징계를 요청하고 공식 사과하면서 폭로전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정호 총괄은 지난 3일 카카오 내부망에 “저는 스스로 윤리 위원회에 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요청했다”며 “100대0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내부 원칙 중 ‘100대0’ 원칙은 카카오 내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100% 공유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절대

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자는 뜻이다.

◆카카오 10년만 12만배 성장… 문어발식 확장 ‘발목’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술탈취와 소상공인 ‘갑질’ 의혹에도 휩싸였다.

카카오는 단 10년 만에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12만배 성장했다. 이는 빠른 사업 확장 덕분이었는데, 메시저는 물론 택시, 음악, 송금, 선물하기, 대리운전, 꽃배달과 퀵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넓히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해 수익을 올렸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카카오의 독과점 행태와 수수료 착취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카카오택시는 경쟁사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카카오택시 운전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업계와 타협 중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계속 협의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탈취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이다. 카카오의 골프 사업 계열사 카카오VX는 기술탈취 의혹을 받고 있고,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 도용 의혹이 제기된 후 현재는 중재된 상태다. 다만, 카카오헬스케어는 서비스 출시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첫 시위’ 나선 노조, 준신위에 조사 맡겨야

그룹의 내부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임직원들 사이에선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4일 오전 인적쇄신과 직원의 경영쇄신 활동 참여 등을 요구하는 첫 시위에 나섰다. 이날 노조는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이 폭로한 일련의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외부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흥은택 카카오 대표가 각종 의혹에 대해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를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한 경영진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이끌고 있는 경영쇄신 위원회에 일반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카카오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그룹의 주가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한 때 17만원이 넘던 카카오 주가. 2년만에 3만원대로도 떨어졌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14위까지 밀려났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AI 기술 활용 첨단·융합 솔루션 선보

‘북미영상의학회 2023’ 참가 세계 최초 이동형 CT도 공개

삼성이 북미에서 영상의학 트렌드 리더십을 자랑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에 참가했다. 삼성은 이번 행사에서 AI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등 기술을 영상학과 접목시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일반 카메라 기술을 디지털 엑스레이에 도입해 촬영 편의성을 높인 AI 촬영보조 솔루션 ‘에이스 GC85A’의 비전 어시스트 기능 시연은 유럽 실사용 고객을 초빙하며 효과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세계 최초 이동형 CT 기기도 처음 공



RSNA 삼성 부스.

개했다.반도체 활용 신기술인광자계수검출기(PCD)를 적용했다. 자체 심포지엄에서 정원을 30% 초과하며 관심을 입증했다. 아울러 디지털 엑스레이용 AI 진단보조기능인 ‘온디바이스 CAD’와 ‘에스 인핸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관상동맥석회화검출연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그 밖에 모바일 환경에서 오래 활용 가능한 디지털 엑스레이 ‘에이스 GM

85’를 경험하는 모바일존을 구성해 실감나는 체험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부문에서는 실시간 신경 추적 기능 ‘너브트랙’ 등 보조 기능과 개발 완료 단계인 ‘장 초음파’와 간진단 기능도 화제를 모았다. QLED TV와 빔프로젝터 프리스타일 등을 조합하며 다양한 가전과 활용성도 선보였다. 소아 전용 ‘L3-22 프로브’도 있었다.

유규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겸 삼성메디슨 전라매케팅팀장(부사장)은 “삼성은 AI를 접목한 영상 진단 장비와 앞선 IT기술을 활용해 영상 화질 개선과 함께 사용의 편의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진단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글로벌 의료진단 업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

12월 이용자 600만명에 거래액 3배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연간 1억 이상 수익 올리는 채널 多

네이버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가오픈플랫폼으로 전환한 이후 1년 10개월여만에 600만에 달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확보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다.

네이버는 올해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의 채널 수와 유료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13만개 이상의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자들의 수익성도 향상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월 100만원 이상 구

준히 콘텐츠를 판매하는 채널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콘텐츠 판매액이 1억 이상인 채널들도 수십 개에 달했다. 전년 대비 전체 결제 건수는 2배, 거래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았던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구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과 AI(인공지능) 기술 도구를 제공해 콘텐츠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거나 자동 생성된 텍스트 자막을 콘텐츠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인증 대거 획득

프랑스 BV선급서 총 3건 승인

한화오션(이) 이산화탄소 관련 기술에 대한 선급 인증을 대거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세계 4대 선급중 하나인 프랑스 BV선급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이중화물(이산화탄소·암모니아) 운반선의 화물운영시스템 ▲액체이산화탄소 운반선(LCO2운반선)의 재액화시

스템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스템 등 총 3건의 기본인증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한화오션에서 획득한 이산화탄소-암모니아 이중화물 운반선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운송이 가능한 신개념 선박으로, 운항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박 기술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T우주 마케팅으로 韓광고대상 은상

“T우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SK텔레콤은 국내 광고 업계 시상식인 ‘2023년 대한민국광고대상’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서 T우주 마케팅으로 은상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T우주 퍼포먼스 마케팅에

팅에 대해 “데이터 기반한 타겟팅 고도화와 개인화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우주패스 가입에 대한 고려도를 높이고 필요한 상품을 제안해 상품 가입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